

초등 예비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인식 실태

조미현¹

◀◀ 요약 ▶▶

본 연구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주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들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중요도와 실행 수준 관련 인식을 분석하고,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탐색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13가지 역량들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 예비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역량들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교육 이슈 파악 및 수업 적용’ 관련 역량이 우선적으로 노력을 집중하여 신장해야 하는 것으로, ‘미디어 사용 통제’와 ‘미디어 내용 분석 및 비판’을 포함한 7가지 역량들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적인 맥락 이해’와 ‘정보 또는 콘텐츠 제작’을 포함한 4가지 역량들이 우선순위를 낮게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콘텐츠 감상 및 향유’ 역량이 과잉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초등 예비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초등 예비교사, 예비교사 교육, 중요도-실행도 분석

1.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mihjo@cje.ac.kr

I. 서론

테크놀로지를 통해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며, 미디어를 사용하여 책임감 있게 정보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9; 김양은, 2020; 한희경, 2020).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식정보처리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과 같은 미래 사회 핵심 역량과 직결되며, 미디어에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하는가가 자칫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격차로 확대될 수 있기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김양은, 2020; 김현진, 김현영, 김은영, 최미애, 2019; 정현선 외, 2016).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그 한 가지 예가 가짜 뉴스의 생산, 유통 및 사용과 관련한 문제이다(김재경, 2019; 김현진 외, 2019; 정현선, 허경, 2020). 가짜 뉴스로 인하여 유통되는 정보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운용이 어려워지기에 가짜 뉴스는 민주 사회에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김재경, 2019; 원용진 외, 2019). 또한 아동들과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을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가짜 정보도 무분별하게 신뢰할 수 있기에 유의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정현선, 박유신, 전경란, 박한철, 2015).

또 다른 예로, AI로 말미암은 편향된 정보의 사용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맞춤형 정보 추천 서비스와 같은 AI 기반의 알고리즘은 개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알고리즘은 개인이 유사한 정보만을 접하도록 하여 가치편향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고, 공정성을 구현하기 어려워 사회적 차별 또는 배제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김양은, 2020; 정현선, 2020). 따라서 미디어의 AI에 기반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능력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으로 새롭게 부각되어야 한다(정현선, 허경, 2020).

이와 같이 미디어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경험의 책임을 개인의 통제 능력이나 사용 능력 부족 때문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한희경, 2020). 그러나 미디어를 잘 사용하도록 하려면, 사용자가 바람직한 미디어 사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격차를 줄이고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안정임, 김양은, 전경란, 최진호, 2017;

한희경, 2020; 황치성, 2017).

그 필요를 고려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 핀란드,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21세기 사회의 필수 시민 역량으로 규정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해왔다(김현진 외, 2019). 또한 UNESCO, EC, OECD, ATC21S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교육 단체들도 학교 교육을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신장을 주요 과제로 강조해 왔고, 더 나아가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지식정보 처리, 테크놀로지 사용 능력 등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상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원용진 외, 2019; 정현선 외, 2016).

국외 동향과 비교할 때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비교적 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특히 공교육 측면에서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양은, 2020; 김현진 외, 2019; 장은주, 2020; 황치성, 2017). 학교 미디어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학교의 미디어 수업은 교사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편차가 크기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정비와 더불어서 교사와 예비교사 교육을 통해 교육 담당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아미, 박유신, 백선희, 양소은, 2020; 변숙자, 2021; 원용진 외, 2019; 장은주, 2020). 이 필요를 반영하여 교육부(2019)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추기에 앞서서 교사 스스로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원용진 외, 2019).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요 역량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수준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요 역량과 관련하여 그 중요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본인의 실행 수준에 대한 인식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신장을 위해 대학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 및 특성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또한 변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서의 리터러시가 강조되면서 미디어 메시지의 비판적 해석,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참여, 소통과 협업, 디지털 시민성 등이 강조되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역량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변숙자, 2021).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필요한 정보나 콘텐츠에 접근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미디어가 전달하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미디어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생산하여 공유하고,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는 윤리적인 능력과 태도를 포함하는 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9; 김경희 외, 2018; 정현선 외, 2016).

같은 맥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의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미디어는 정보를 얻는 중요한 자원이며, 동시에 즐거움을 느끼고,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가운데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현선 외, 2015).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생산하고 공유하는 방법뿐 아니라 미디어와 관련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책임감을 갖고 미디어를 사용하고 생산하고 공유하는 활동들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을 분류하였다. 그중에서 김양은, 박한철, 배은주(2016)의 연구와 안정임 외(2017)의 연구가 자주 인용된다. 김양은 외(2016)의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을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안정임 외(2017)의 연구는 교육의 영역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연구가 제안한 교육의 영역과 각 영역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두 연구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비판적 이해, 창의적인 표현과 생산,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참여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으로 공통되게 제안하며, 이에 덧붙여서 안정임 외(2017)의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요 영역인 윤리 부분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안정임 외(2017)가 윤리 영역을 포함하여 제안한 5가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들을 반영하여 예비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인 역량에 대한 인식 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 분류

김양은 외(2016)		안정임 외(2017)		
영역	영역 설명	주영역	세부 영역	영역 설명
미디어에 대한 접근 능력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접근, 미디어의 기술적 사용 관련 지식, 정보의 검색, 판별, 평가 및 조절 능력	접근	미디어 사용 기술 능력	여러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기술적 사용 능력
			미디어 사용 통제 능력	미디어에 대한 노출과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
			도구적 사용 능력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능력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미디어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지식,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 미디어를 둘러싼 사회, 정치, 경제, 기술, 미학 관련 요인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비판적 이해	미디어의 재현 이해 능력	미디어에서 재현된 상황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고 구분하는 능력
			미디어의 상업성 이해 능력	미디어의 경제적 구조, 산업적 특성, 상업성 등을 이해하는 능력
			정보판별 능력	미디어에서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 편향성, 의도성 등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능력
미디어를 통한 창의적 표현 능력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한 창의적 쓰기, 자아 정체성 및 의견, 지식, 감정 등을 미디어 텍스트의 제작을 통해 표현하는 능력	창의적 생산	미디어 제작 능력	미디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
			자기표현 능력	미디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의적인 콘텐츠로 표현하는 능력
			공유 능력	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생각, 의견, 콘텐츠 등을 나누고 공유하는 능력
미디어를 통한 소통 능력	미디어 읽기와 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 민주적 참여 활동 능력, 정보의 공유 및 나눔 능력	참여	네트워킹 능력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능력
			협업 능력	문제해결과 과제수행 등을 위해 타인과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시민적 실천과 참여 능력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
		윤리	관용과 배려 능력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능력
			책임 있는 사용 능력	불법적인 미디어 사용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책임 있는 미디어 사용 능력
			보호 능력	개인정보 노출 등 미디어 사용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

2. 국내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들 중 한 가지로 인정(김경희 외, 2018; 김현진 외, 2019; 안정임 외, 2017; 한희경, 2020;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 2019)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역량 신장을 위한 국내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외 사례로는 미디어 교육과 시민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온 독일, 프랑스, 영국과 핀란드의 교육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은 1990년대 이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왔고, 그 프로젝트들은 미디어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원용진 외, 2019). 2016년에는 초등교육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김현진 외, 2019).

프랑스는 2005년에 관련 법을 개정하여 미디어 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하고, 2008년부터 초등교육 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11년부터는 미디어 교육이 학교 학력검증 국가고시인 Brevet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강진숙, 조재희, 정수영, 박성우, 2017; 국회입법조사처, 2019). 교육부 산하 전문교육기관인 국립미디어센터(CLEMI)는 초·중등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김현진 외, 2019; 원용진 외, 2019).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미디어 교과가 학교 교육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강진숙 외, 2017; 국회입법조사처, 2019). 학교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연구, 영화 연구, 커뮤니케이션 연구 과목과 같이 선택 가능한 독립 교과로 개설되거나, 통합 교과의 형태로 여러 과목들의 하위 과정으로 배정되어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9; 김현진 외, 2019). 독립 교과 중 하나인 미디어 연구 과목은 중등교육과정 GCSE 국가시험과 A-level 대학입학자격 국가시험의 선택과목이기도 하다.

핀란드는 1~9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을 위한 국가 핵심 교육과정’을 2014년에 발표하면서 교과목 단위의 접근에서 벗어나 7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7대 핵심역량을 신장하고자 하였으며, 7대 핵심역량 중 한 가지로 ‘멀티리터러시’를 포함하여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다양한 사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시하고 있다(김현진 외, 2019).

이와 비교할 때, 국내의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개념과 수행 목표를 도출하고 교과

및 교과 통합 수업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와 교과서 단위 모형을 개발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정현선 외, 2015; 정현선 외, 2016). 2016년에는 ‘인성교육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그 중점 과제 중 한 가지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 2016). 이와 더불어서 2016년부터 3년간 미디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였다(장은주, 2020). 그러나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선도학교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강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었기에 체계성이 부족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교육부, 2019; 한희경, 2020).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들 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의사소통 역량’ 및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관련되며, 미디어 사용 경험과 미디어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행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원용진 외, 2019; 정현선 외, 2015).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에서 이 역량들과 관련한 활동들은 소극적으로 서술되는 수준에 그치고, 주체적인 이해와 창조 활동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교육부, 2019).

국외의 사례로 독일, 프랑스, 영국과 핀란드의 미디어 교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각 나라들은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들을 시행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비교할 때, 국내의 교육 실태 분석을 통해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교육에 체계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김양은, 2020; 장은주, 2020; 한희경, 2020).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체계화와 더불어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역량 신장을 위한 교육 역시 증시되어야 한다(김아미 외, 2020; 원용진 외, 2019; 정현선 외, 2016).

3. 관련 선행 연구 분석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중요성과 비교할 때, 국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김경희, 정운경, 오연주, 2020; 정현선 외, 2016). 국내에서 수행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먼저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와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신장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들 또는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에서는 ‘미디어의 종류에 초점을 둔 연구’와 ‘미디어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 사례들을 통하여 학교 미디어 교육의 필요와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미디어의 종류에 초점을 둔 연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디어로 알려진 온라인 동영상의 사용 실태를 살펴본 연구 몇 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9)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대 청소년 2363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대 청소년의 87.4%가 온라인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비율은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영상 자료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려진 20대(69.9%)와 비교해도 17.5%나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와이즈앱(2019)의 연구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10대들(월평균 41시간 40분)로 나타나서 10대가 20대(월평균 31시간 22분)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했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관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은 ‘포탈’에서 찾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것과 비교하여 초등학생들은 ‘동영상’을 보며 정보를 찾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초등학생들의 동영상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10대 청소년의 동영상 사용도가 높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동영상의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크기에 유의할 점들이 있다. 한 가지 예로, 동영상 사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미흡하여 10대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유튜브들의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무분별하게 따라 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김형진, 2021). 또한, 영상 시청 이력에 기초하여 유사한 영상들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유사한 내용들에만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다양한 시각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Lafrance, 2017). 이와 같이 학생들이 미디어 사용을 통해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주관을 갖고 책임감 있게 미디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 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다. 한 가지 예로, 한국언론진흥재단(2016)에서 수행한 한 연구는 학생들의 뉴스를 통한 정보 습득에 초점을 두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뉴스를 더 잘 사용하고, 다양한 뉴스를 찾아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뉴스 사용 시간, 뉴스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정보를 얻기 위한 뉴스 사용 등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뉴스가 나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살펴본다’, ‘뉴스 내용을 이해를 위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추가정보를 찾아본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찾아본다’,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를 확인해본다’, ‘나와 다른 의견/입장을 가진 언론사의 뉴스도 본다’ 등과 같은 뉴스 사용 행동들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근 가짜 뉴스와 청소년들이 뉴스를 보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뉴스 리터러시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해준다. 또 다른 예로 미디어 교육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신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한 연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국언론진흥재단(2016)의 연구는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같이 4가지 역량 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황치성(2015)의 연구 역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등 21세기 핵심 역량 신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통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들 또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신장의 필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교사들 또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한 연구’, ‘교사교육의 필요를 제안한 연구’ 등이 있다. 먼저,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들 몇 편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은희, 신호재, 이재진, 정현진(2018)의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2631명과 중학교 교사 19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수업에서 사용하는 리터러시 기능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온라인 의사소통,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 발표, 멀티미디어 사용 등의 기능들을 강조하였다. 교과 수업에서의 리터러시 교육 활동은 교사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시청하는 활동, 교사의 안내를 받으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하는 활동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리터러시 활동은 교과 수업에서 학생의 동기 유발, 자료 설명, 자료 수집, 시범과 조언, 수업시간 실습 활동 등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 수의 교사들이 본인의 수업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주요 장애 요인들 중 한 가지로 교사 역량 부족과 교사 연수 부족을 지적하였다.

변숙자(2021)의 연구는 충청북도 전 지역의 초·중·고 교사 579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행 실태를 조사하였다. 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디어의 윤리적 사용’ 영역과 관련한 역량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디어를 사용한 정보 찾기’, ‘미디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미디어 정보의 신뢰성 판별’, ‘미디어를 사용한 자료생산’ 순으로 역량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세종시 304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고 있는지를 조사했던 한희경(201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수행 역량 중 ‘윤리적 역량’을 가장 높게 그리고 ‘창의적 생산 역량’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학교 수업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떤 영역에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미디어의 윤리적 사용’ 영역을 가장 많이 다루며, 다음으로 ‘미디어를 사용한 정보 찾기’, ‘미디어를 사용한 의사 소통’, ‘미디어 정보의 신뢰성 판별’, ‘미디어를 사용한 자료생산’의 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이 확대되었고,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윤리’ 외에도 ‘미디어에 대한 접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미디어를 통한 창의적 표현과 생산’,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왔다(김양은 외, 2016; 안정임 외, 2017). 그러나 미디어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은 학교 현장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이 ‘윤리’에 치중되어 있거나 단순한 미디어의 사용에 그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주요 영역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사의 역량 인식도 부족하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따라서 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별로 균형 잡힌 역량 신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고려하여 김아미 외(2020)의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오랜 기간 실천해 온 우수교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세부역량들을 제안하며,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행 주체인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의 역량 강화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초등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으로 인식하고, 예비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논문지에 게재한 사례도 있다. 김현희, 심현지, 임선형, 조수빈(2020)은 예비교사로서 재학 중인 교육대학교의 7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역량과 강의 편성 필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알고 있고 관련 역량을 갖추었다고 응답한 예비교사는 응답자의 14.3%에 불과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원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92.2%의 응답자가 교육을 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교대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강좌 확대의 필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예비교사들이 수행한 이 연구의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개별 역량, 교육 실행 역량, 인식 등과 관련한 실증적인 자료들에 근거하여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부족하기에 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변숙자, 2021).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167명이었다. 총 17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7명이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73명(43.7%) 그리고 여학생이 94명(56.3%)이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8명(46.7%)이었으며,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89명(53.3%)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김양은, 박한철, 배은주(2016)가 개발한 ‘미디어 교육의 목표로 살펴본 교사 미디어 리터러시 점검표’에 제시된 문항들을 주로 하고, 원용진 외(2019)와 정현선 외(2015)의 자료에서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설문 문항들 중에서 교사의 수업 능력과 콘텐츠 제작 능력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였다. 설문 도구는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관련한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사의 수업 능력을 제외한 문항들은 안정임 외(2017)가 제안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영역에 따라 분류하였다. 설문 문항과 영역 분류에 대해 교육공학 전문가 2인, 교육평가 전문가 1인과 수석교사 1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문항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표현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설문 도구에서 제시하는 각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대하여 응답자가 객관적으로 교사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중요도)와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실제 수준(실행도)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중요도의 경우 ‘전혀 중요하지 않다(1)’에서 ‘매우 중요하다(5)’까지 그리고 실행도의 경우에는 ‘매우 못한다(1)’에서 ‘매우 잘한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도구 구성의 구체적인 예는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다음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하세요.

- 객관적 중요도 판단: 각 문항이 객관적으로 교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
 ①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중요한 편이다 ⑤매우 중요하다
- 자기 실행 수준 평가: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실행 수준을 평가
 ①매우 못한다 ②못하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잘하는 편이다 ⑤매우 잘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역량	객관적 중요도 판단					자기 실행 수준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미디어 사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2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										

[그림 1] 설문 도구 구성의 예

<표 2> 설문 도구의 문항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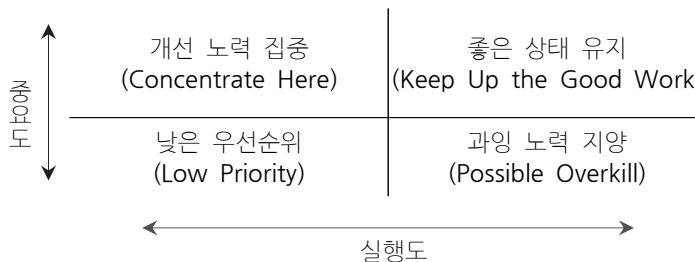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영역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역량
접근	A1	미디어 사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A2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
	A3	미디어의 정보를 검색하고, 선별하며, 관리할 수 있는 능력
	A4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이해	U1	미디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U2	미디어가 갖는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U3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
창의적 생산	C1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
	C2	미디어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참여	P1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에 참여하는 능력
	P2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영역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역량
윤리	E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초상권, 개인 정보, 저작권 등의 보호를 실천하는 책임 있는 미디어 사용 능력
수업 역량	T	지식정보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시해야 할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

3. 자료 분석 방법

초등 예비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 수준 관련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예비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관련한 영역별 세부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교사 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위해서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중요도를 y축 그리고 실행도를 x축으로 하여 각 세부역량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들을 차트에 그리고, [그림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차트에서 위치한 영역에 따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Martilla & James, 1977). 1사분면에 위치한 역량들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아서 좋은 성과를 보이기에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2사분면에 위치한 역량들은 중요도는 높지만 실행도는 낮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3사분면에 위치한 역량들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낮기에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낮게 부여하고, 4사분면에 위치한 역량들은 중요도는 낮는데 실행도가 높기에 이미 지나치게 많은 노력이 투입된 것으로 해석하여 과잉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 중요도-실행도 좌표

IV. 연구 결과

1. 영역별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분석

예비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요 역량들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 수준 인식을 알아본 결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5점 최고점 기준으로 ‘미디어를 사용하여서 의미 있는 정보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가장 낮은 응답 점수(4.49)가 나타났으며, ‘미디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 점수(4.86)가 나타났다.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역량에 대한 ‘지식정보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시해야 할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그 다음으로 높은 4.85의 응답 점수가 나타났다. 한편 실행 수준에 대해서는 ‘미디어를 사용하여서 의미 있는 정보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가장 낮게 응답(3.32)하였으며,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가장 높게 응답(4.05)하였고 이는 유일한 4점대의 응답이었다.

예비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요 역량들에 대해 객관적인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실행 수준에 대한 인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자유도는 166이었다.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영역들 중에서 ‘접근’ 영역과 관련한 4가지 세부역량들 모두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된 것은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이었으며, 가장 작은 차이가 발견된 것은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은 ‘미디어의 정보를 검색하고, 선별하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한편 실행도에 대해서는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접근’ 영역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세부역량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실행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 실행도 차이	t
A1	미디어 사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4.75 (.449)	3.68 (.761)	1.07	15.315***
A2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	4.62 (.566)	3.47 (.856)	1.15	15.363***
A3	미디어의 정보를 검색하고, 선별하며, 관리할 수 있는 능력	4.80 (.469)	3.82 (.786)	.98	14.181***
A4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4.59 (.561)	4.05 (.798)	.54	7.684***

*** p<.001

‘비판적 이해’ 영역과 관련한 세부역량들에 대해서도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세부 역량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미디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과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동일하게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은 ‘미디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었으며,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4〉 ‘비판적 이해’ 영역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세부역량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실행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 실행도 차이	t
U1	미디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4.86 (.352)	3.74 (.793)	1.12	17.492***
U2	미디어가 갖는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4.77 (.465)	3.68 (.829)	1.09	15.316***
U3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	4.63 (.564)	3.51 (.828)	1.12	16.252***

*** p<.001

‘창의적 생산’ 영역과 관련한 2가지 세부역량들 모두에 대해서도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2가지 세부역량들 중에서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점수가 더 높았으며,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는 ‘미디어를 사용하여서 의미 있는 정보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5〉 ‘창의적 생산’ 영역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세부역량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실행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 실행도 차이	t
C1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	4.74 (.439)	3.69 (.791)	1.05	16.118***
C2	미디어를 사용하여서 의미 있는 정보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	4.49 (.710)	3.32 (.892)	1.17	15.957***

*** p<.001

‘참여’ 영역과 관련한 2가지 세부역량들에 대해서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t검정을 실시한 결과, 2가지 역량들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점수가 높았으며,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는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에 참여하는 능력’에 대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6〉 ‘참여’ 영역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세부역량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실행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 실행도 차이	t
P1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에 참여하는 능력	4.59 (.642)	3.43 (.874)	1.16	15.865***
P2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4.74 (.548)	3.86 (.828)	.88	13.077***

*** p<.001

‘윤리’ 영역의 역량에 대해서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는 타 영역의 세부역량들에 대한 차이와 비교할 때 비교적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수업 역량’ 영역에 대해서도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는 타 영역의 세부역량들에 대한 차이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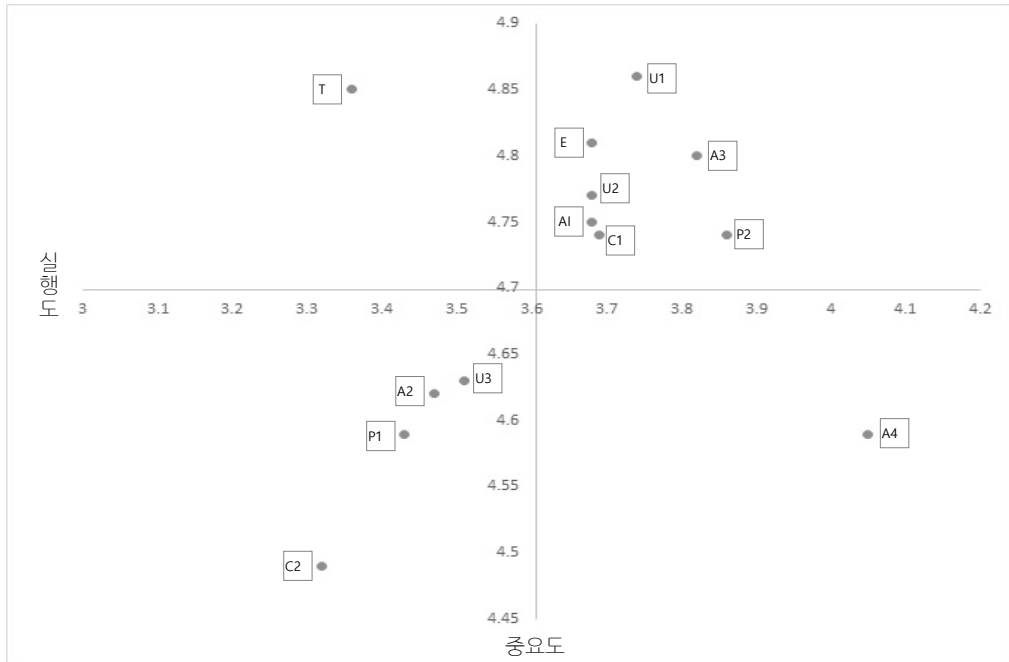
〈표 7〉 ‘윤리’와 ‘수업 역량’ 영역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세부역량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실행도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 실행도 차이	t
E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초상권, 개인 정보, 저작권 등의 보호를 실천하는 책임 있는 미디어 사용 능력	4.81 (.490)	3.68 (.844)	1.13	16.051***
T	지식정보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시해야 할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	4.85 (.374)	3.36 (.730)	1.49	23.698***

*** p<.001

2. 중요도-실행도 분석

예비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야 할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중요도를 y축으로 그리고 실행도를 x축으로 하여 차트를 그리고, 나뉘어진 사분면에 각 세부역량들의 점수들을 배치하여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3] 예비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차트에 배치된 응답 점수의 위치에 따라서 세부역량들의 개선 방안을 ‘좋은 상태 유지’, ‘개선 노력 집중’, ‘낮은 우선 순위’와 ‘과잉 노력 지양’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개선 방안 제안

개선 방안 구분	미디어 리터러시 세부역량
좋은 상태 유지 (1사분면)	미디어 사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A1) 미디어의 정보를 검색하고, 선별하며, 관리할 수 있는 능력(A3) 미디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U1) 미디어가 갖는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U2)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C1)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P2)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초상권, 개인 정보, 저작권 등의 보호를 실천하는 책임 있는 미디어 사용 능력(E)
개선 노력 집중 (2사분면)	지식정보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시해야 할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T)
낮은 우선순위 (3사분면)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A2)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

개선 방안 구분	미디어 리터러시 세부역량
	(U3) 미디어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C2)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에 참여하는 능력(P1)
과잉 노력 지양 (4사분면)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A4)

구분된 개선 방안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2사분면에 위치한 역량이다. 이 역량에 대해서 예비교사들은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지만 실행도가 낮기에 개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 2사분면에 위치한 역량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교사의 수업 역량으로 나타났기에 이 역량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 모두 높아서 1사분면에 위치한 역량들은 ‘미디어 사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 7가지 역량들이므로 밝혀졌다. 이 역량들은 중요성도 높게 인식되고, 좋은 실행 수준을 보이기에 현 상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에 대한 평가가 모두 낮아서 3사분면에 위치한 역량들은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에 참여하는 능력’을 포함한 4가지 역량들이므로 밝혀졌다. 이 역량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 인식되고 그와 더불어서 실행 수준도 낮기에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실행 수준이 높아서 4사분면에 위치한 역량은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량은 낮은 중요도와 비교할 때 실행 수준이 높기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과잉 노력을 지양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외 교육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외의 주요 국가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교육부(2019)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 '교원의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와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공교육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교원의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예비교사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수업 역량을 갖추기에 앞서서 교사 개인별 기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원용진 외, 2019).

이에 교육부의 계획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주요 미디어 리터러시 개인 역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실행 수준에 대한 인식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예비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인 역량을 신장하기 위하여 대학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수행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분석'과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조사한 모든 역량들에 대해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예비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수준을 고루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주며,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역량부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하겠다. 먼저 '접근' 영역에서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가 1.1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역량은 '미디어 사용 기술 능력', '미디어 통제 능력'과 '도구적 사용 능력'과 같은 '접근'과 관련한 세부 영역들(안정임 외, 2017) 중에서 미디어의 '도구적 사용 능력'과 관련한 것으로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판적 이해' 영역에서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 점수가 '미디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과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서 동일하게 1.12로 나타났으며, '미디어가 갖는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그보다 조금 낮은 1.09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비판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미디어의 재현 이해 능력', '미디어의 상업성 이해 능력'과 '정보 판별 능력'과 같은 세부 영역들(안정임 외, 2017) 모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하겠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말미암아 다출처 텍스트, 디지털 플랫폼 등에 대한 비판적 이해 증진과 같은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판적 이해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정현선, 2020).

‘창의적 생산’ 영역에서는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가 ‘미디어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1.17로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창의적 생산의 세부 영역들(안정임 외, 2017) 중에서 특히 ‘자기 표현 능력’이나 ‘공유 능력’과 비교할 때 ‘미디어 제작 능력’에 대해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예비교사들이 미디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교육공학협회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6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 ‘창의성과 혁신’을 포함하여 제작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황치성, 2017),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2019) 역시 ‘21세기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의 2가지 주요 역량들 중 하나로 미디어 자료 제작을 중시하였던 사례들을 참고할 때 미디어 자료 제작 역량의 신장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참여’ 영역의 경우,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에 참여하는 능력’에 대해 1.16으로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참여’와 관련한 세부 역량들(안정임 외, 2017) 중에서 ‘네트워킹 능력’과 ‘협업 능력’도 중시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민적 실천과 참여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추어 예비교사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윤리’ 영역과 관련한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초상권, 개인 정보, 저작권 등의 보호를 실천하는 책임 있는 미디어 사용 능력’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가 1.13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노출과 같이 미디어 사용 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부터의 ‘보호 능력’과 불법적인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책임 있는 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업 역량’과 관련해서는 나머지 역량들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가 최소 .54부터 최대 1.17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과 비교할 때 1.49로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시해야 할 이슈들을 이해하고, 그 이슈들에 대해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수업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예비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통해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 결과들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각 역량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실행 수준도 갖추게 된다는 경향을 보여준다. 학습 내용을 학습자의 가치에 연계시킴으로써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음(Keller, 2009)을 고려할 때,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예비교사들이 각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 차트의 2사분면에는 ‘수업 역량’에 속하는 ‘지식정보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시해야 할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T)’이 유일하게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개인적인 역량들과 비교할 때, 교사의 수업 역량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이 수업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다.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 빈도가 증가될 것을 예측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노력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일부 분이 되어 가는 미디어를 지혜롭게 사용하며, 미디어가 제공하는 메시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미디어를 사용해서 명확하고 책임감 있게 표현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원용진 외, 2019; 정현선, 2020).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행 역량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신장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김아미 외, 2020; 변숙자, 2021).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인 역량에 초점을 두어 전문적 수업 역량을 살펴보기 못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을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실태를 분석하여 예비교사의 실제 실행 역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향후에는 교사와 예비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개인 역량은 물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전문성 향상을 통한 수업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교사와 예비교사의 실제적인 개인 역량과 수업 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 논문 투고일: 2021. 12. 27. ※ 논문 수정일: 2022. 2. 16. ※ 게재 확정일 : 2022. 2. 21.

〈참고문헌〉

- 강진숙, 조재희, 정수영, 박성우(2017). **해외 미디어교육 법체계 및 정책기구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교육부(2016).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 교육부(2019).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 국회입법조사처(201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김경희, 이숙정, 김광재, 정일권, 박주연, 심재웅, 최세정, 전경란(2018).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경기 파주: 한올아카데미.
- 김경희, 정윤경, 오연주(2020). **대학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도현(2020). 국내 미디어·디지털·정보·ICT 리터러시의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6(3), 93-119.
- 김아미, 박유신, 백선희, 양소은(2020). **교원 및 예비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 김양은(2020). 왜 미디어 리터러시인가. **교육정책포럼**, 320, 6-9.
- 김양은, 박한철, 배은주(2016). **자유학기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 김재경 역(2019). **포스트 트루스: 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서울: 두리반.
- 김현진, 김현영, 김은영, 최미애(2019).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현희, 심현지, 임선형, 조수빈(2020). 교육대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 확대' 제안: 예비 교사도 미디어 리터러시 배우고 싶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12, 88-93.
- 김형진(2021). 10대를 위한 슬기로운 유튜브 생활. **미디어 리터러시**, 16, <https://dadoc.tistory.com/2945>.
- 노은희, 신호재, 이재진, 정현진(2018). **교과 교육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변숙자(2021). 초·중·고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수행 양상 및 인식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149-167.
- 안정임, 김양은, 전경란, 최진호(2017).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이슈 및 정책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와이즈앱(2019). '유튜브'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https://platum.kr/archives/127950>.
- 원용진, 허경, 박한철, 김양은, 권장원, 금준경, 최용수, 김지연, 박종구, 강진숙, 김아미, 최숙(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서울: 지금.
- 장은주(2020). 학교 미디어교육의 현재와 과제. **교육정책포럼**, 320, 10-12.
- 정현선(2020).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오래된 과제와 새로운 과제. **새국어교육**, 125, 7-37.
- 정현선, 김아미, 박유신, 장은주, 길호현(2016). **초중등 교과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단원 개발 연구**. 교육부.
- 정현선, 박유신, 전경란, 박한철(2015). **미디어 문해력(Media Literacy)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 정현선, 허경(2020). 비판적 사고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컴퓨팅 사고의 융합. **Journal**

of Korean Culture, 48, 105-128.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2016 청소년의 뉴스 사용 및 리터러시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사용 조사.**

한희경(2019).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태 분석과 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세종교육정책연구소.

한희경(2020).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교육정책포럼, 320, 18-22.**

황치성(2015). 미디어리터러시가 창의적 사고 및 21세기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교육 연구, 9(1), 23-31.**

황치성(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멀티 리터러시·ICT 사용 수업 공교육 과정에 도입 검토해야. **미디어 리터러시, 1, 28-33.**

Keller, J. M.(2009). *Motivational design for learning and performance: The ARCS model approach.* New York, NY: Springer.

Lafrance, A.(2017). *The Algorithm that makes preschoolers obsessed with YouTube.* Retrived from <http://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7/what-youtube-reveals-about-the-toddler-mind/534765/#Algorithm%20>.

Martilla, J. A., & James, J. C.(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2019).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definition.*

〈Abstract〉

Current Status of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Toward Media Literacy Competencies

Jo, Miheon¹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regarding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 of the major competencies in media literacy that are expected of teachers. In addition, it explored the tasks to be addressed in the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pre-service teach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167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using a questionnaire on 13 competencies related to media literacy. The result of the t-test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all competencies. In additio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competency related to 'identification and class application of major educational issues' needs improvement; seven competencies including 'control of media use' and 'analysis and critique of media content' should be maintained for good condition; four competencies including 'understanding sociocultural context' and 'creating information or contents' require less priority, and the competency related to 'appreciation and enjoyment of contents' should avoid excessive effort.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proposed issues to be considered in organizing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the competencies of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in media literacy.

Key words : media literacy education,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1.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ihjo@cje.ac.kr